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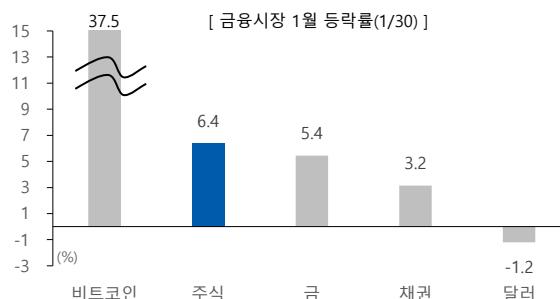
2023.2.1

숨차게 반등, 잠시만 술까

1. 1월 자산가격 투어는 성황리에 종료

- 1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은 전반적 강세. 달러가 내리고 주식, 채권, 가상화폐 등 대부분이 반등에 성공
-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국내증시의 강세가 두드러진 점이 특징적. 아시아에서 한국이, 선진국에서 유럽이 강한 최근 시황 배경 중 하나는 중국의 리오프닝
- 과거 중국의 성장률이 개선되는 국면에서 아시아에서는 중국 본토 다음으로 한국, 유럽에서는 독일이 강세

1월 금융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상승. 주식시장에서는 국내증시의 상승폭이 상위권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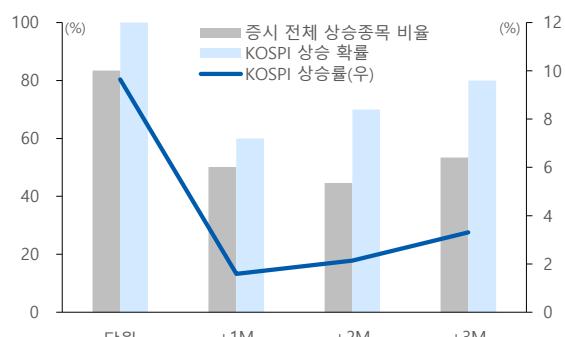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다소 쉬어갈 가능성, 이익실현에서 살아남을 업종에 관심

- 1월 반등은 상승폭뿐 아니라 상승세의 확산도 특징. 국내증시 내 상승종목 수 비율이 81%를 기록
- 80% 초과는 이번을 제외하고 과거 20년간 10회에 불과한 사례. 이 중 1개월 뒤에도 80% 이상의 비율을 유지한 경우는 없었고, 평균적으로 쉬어갔던 경향을 확인
- 중국 소비 관련 업종이나 방어적 업종이 단기 차익실현 발생 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라는 판단

최근 20년간 전종목 중 80% 이상이 오른 경우는 익월에 쉬어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확인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1. 1월 자산가격 투어는 성황리에 종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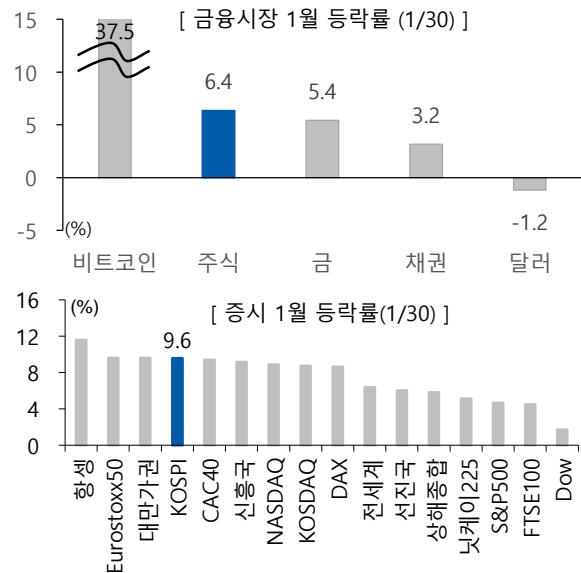
산타는 없었지만 까치는 있었다. 1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.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주식, 채권, 가상화폐 등 대부분의 자산이 반등에 성공했다.

특히 글로벌 증시에서는 KOSPI 지수의 상승이 두드러졌다. 전일(1/31일) 아시아증시 결과를 반영하면 아시아에서는 홍콩(+10.4%)에 이은 두 번째(+8.4%)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.

아시아증시에서는 한국이, 선진국 증시에서는 유럽이 강한 최근 시황의 배경요인 중 하나로 중국의 리오프닝과 그로 인한 중국 경기 개선 기대의 역할이 커다는 판단이다. 중국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와 리오프닝에 힘입어 2분기에 전년동기비 6.9%까지 상향조정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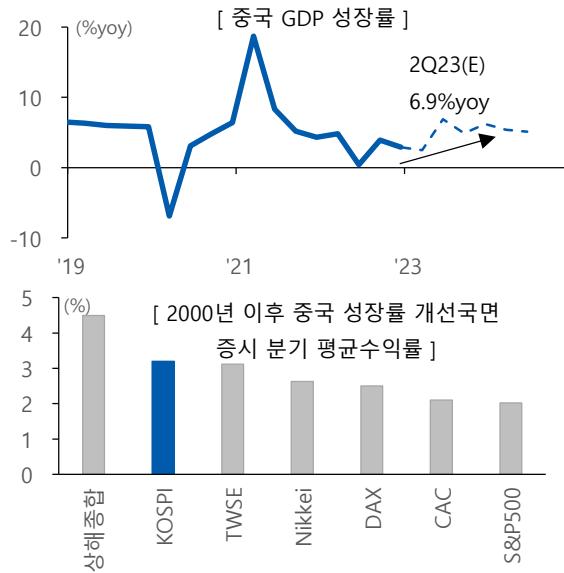
과거 중국의 성장률이 4개분기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개선되는 국면에서 아시아증시에서는 중국 본토 다음으로 한국증시가, 유럽에서는 독일증시가 특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일맥상통한다.

[차트1] 1월 금융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상승. 주식시장에서는 국내증시의 상승폭이 상위권을 기록



자료: Bloomberg,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2] 중국 성장률은 리오프닝 효과를 볼 전망. 중국 경기가 개선될 때 한국, 독일증시가 각 지역 내 우수한 성과



자료: Bloomberg,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

2. 다소 쉬어갈 가능성, 이익실현에서 살아남을 업종에 관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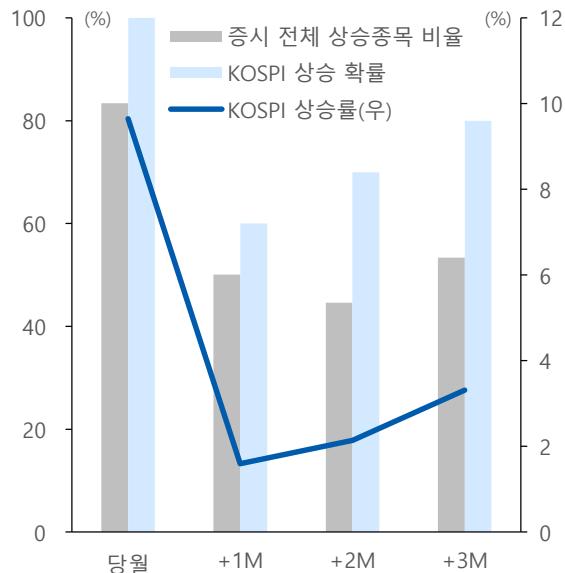
한편 크게 상승한 만큼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환경은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. 1월 증시는 상승폭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종목(우선주, ETP 등은 제외)에서 상승종목 수의 비율이 81%에 달한다. 시장 전반에 상승세가 확산된 셈이다.

과거 20년간 증시 전체종목 중 80% 이상이 오른 경우는 이번을 제외하고 총 10회에 불과하다. 그 중 1개월 뒤에도 상승종목 수 비율이 80%를 유지한 경우는 없었다. 사례가 적긴 하나 평균적으로 한 차례 쉬고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 점이 확인된다.

따라서 단기 전술적인 관점에서 차익실현 욕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. 1월 증시 전반의 강한 반등 과정에서 주가가 덜 올랐거나, 고점대비로 여전히 상승여력이 있거나, 밸류 매력이 있거나, 이익 턴어 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유효한 업종들이 그렇다.

각각의 기준을 동일 가중으로 백분위 점수를 합산한 결과, 중국 소비 관련 업종인 유통, 화장품, 호텔/레저 등과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업종인 건강관리, 필수소비, 소프트웨어, 통신 등의 업종이 상위권에 다수 포함돼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.

[차트3] 최근 20년간 전종목 중 80% 이상이 오른 경우는
익월에 쉬어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확인



자료: Quantwise,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4] 1월 증시 변동 결과 단기 차익실현 욕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는 업종 참고

순위	업종명	주가 등락률	주가 고점대비 낙폭	PBR(TTM)	증시 이익비중 변화율	12mf 영입이익 변화율
1	소매(유통)	3.2	-30.6	-28.2	9.9	3.2
2	건강관리	0.7	-48.1	-55.0	5.3	-5.3
3	화장품,의류	4.7	-40.1	-47.6	3.7	-2.5
4	자동차	9.0	-31.8	-40.2	6.4	-0.2
5	미디어,교육	6.7	-26.8	-38.6	7.8	-2.8
6	에너지	4.2	-31.3	-44.3	2.4	-4.5
7	상사,자본재	4.1	-15.0	-27.9	7.7	1.0
8	필수소비재	0.1	-15.5	-23.9	6.4	0.3
9	호텔,레저	2.6	-19.9	-20.9	8.0	-0.2
10	운송	7.8	-36.6	-62.2	1.8	-6.7
11	소프트웨어	12.7	-51.8	-60.0	0.7	-5.3
12	통신서비스	1.1	-22.1	-20.7	5.1	-1.2
13	기계	6.6	-20.6	-26.0	6.1	-0.7
14	조선	7.2	-22.1	-17.7	2.8	3.4
15	보험	1.8	-3.7	0.0	6.8	0.0

자료: Quantwise,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